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스트비 카페 법여 스님

“매일 아침 스님이 내려주는 커피 드셔보실래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젊은이들의 성지’ 서울 홍대 인근의 한 골목.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창가에서 드립 커피를 내리고 지나가는 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스님이 있다. 8월 1일 문을 연 ‘저스트비 카페’를 총괄하고 있는 법여(法如) 스님이다.

저스트비 카페는 도심 속 사찰이자 수행놀이터라 불리는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최근 창업한 카페로 선원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위치했다. 홍대선원은 선원을 안내하는 인포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자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꿈꾸며 카페를 열었다. 카페에는 매일 정성껏 내린 드립 커피와 카페오레, 수제 매실차, 직접 만든 젤라또 등 단촐하지만 구미를 당기는 메뉴들이 준비됐다. 특히 판매되는 모든 커피는 법여 스님이 정성을 다해 매일 직접 내린 것이다.

예술과 청춘의 기운이 넘실대는 홍대 앞에 위치한데다 스님이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으니 문을 열자마자 골목의 ‘핫플’이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8월 12일 오후, 저스트비 카페를 찾았다. 홍대선원이 개원할 때부터 총무를 시작해 3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법여 스님에게 저스트비 카페 관리까지 맡게 된 배경을 물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머무는 곳이길 바라요. 할 일이 적지 않지만 누군가가 ‘거기 스님이 있어서 좋다’고 해주면 그것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멕시코에서 시작된 불연

법여 스님은 일본 출신이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출가를 한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불연의 시작이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멕시코에서였다고 하니 흥미롭다. 일본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던 20대 초반, 스님은 우연히 언론에서 1994년 1월 1일 유발된 ‘사파티스타 투쟁 선언’의 한 장면을 마주했다.

사파티스타는 1994년 멕시코 원주민 권익옹호를 목표로 빈곤주민 비율이 높은 피아파스를 거점으로 한 산악지대에서 봉기된 대규모 운동이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서양 자본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며 원주민 해방 선언을 정부에 선전포고했다. 이후 12일간 무장봉기를 이끌었고 정부군과의 충돌로 수십명이 사망했다.

세상을 배워가던 20대 초반의 법여 스님은 EZLN 상징인 검은색 발라클라바(눈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와 머리, 목 등을 감싸는 용품)를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삶을 연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멕시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속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투쟁과 연대를 목격했습니다. 일본에서만 보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친구가 건넨 한 권의 책이 스님의 마음과 머리를 강타했다. 숭산 스님의 저서 〈선의 나침반〉이다. 처음엔 무심히 덮어뒀던 책이었지만 쿠바 여행 중 우연히 펼친 그날, 스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충격이었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인 대학생서 조계종 승려로

멕시코서 만난 〈선의 나침반〉 매료
무상사서 출가…운문사승가대 개근

입방 전 우연히 들른 홍대선원서
‘불교 안서 재밌게 노는 법’ 발견

저스트비 카페서 매일 커피 내리며
지역민 함께 커뮤니티 공간 꿈꿔

스님은 결심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 곧 출가였다. 계룡산 무상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해 운문사승가대학에서 2015년부터 4년간 수학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없었다. 경전 공부, 소임, 절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것을 도반들과 똑같이 해나갔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처음 2년은 경전 공부가 힘에 부쳤지만 한국어가 익숙해지면서 3학년부터는 재미가 붙었다.

“졸업할 때 개근상을 받았어요. 공부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며 병원에 실려 가는 학인스님들도 많았지만 저는 버텼죠. 그래서 개근상은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졸업 후 무상사에서 소임을 맡아 2년 반 지내다 홍콩으로 넘어가 은사스님을 모시며 수행을 이어갔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울림이 있었다.



법여 스님은 가슴에 새기는 경전 한 구절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꼽았다. 일상생활에서 집착없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강조한 스님은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다보면 힘이 들겠지만 생각, 감정, 느낌을 ‘나’라고 붙들지 않는다면 분별심을 극복하고 본래심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청년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 노력한다.



운문사승가대학 도반들과 함께.

홍대선원…‘있는 그대로’가 포교

2022년 10월,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입방 전 들린 홍대선원에서 주지 준한 스님을 만났다.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한 스님은 최고의 스태프였다. 법여 스님은 “막 문을 연 홍대선원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 3년이라는 흘렀다”면서 “안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열린 공간인 홍대선원은 특히 젊은 여행자나 유학생, 청년 불자들이 머무르며 수행과 생활을 함께 한다. 스님은 규율보다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응원해 주고, 최대한 서포트 해 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 봉사하려고 해요.”

평소 청년 포교에 대해 ‘불교 안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다는 스님은 “저스트비 카페가 딱이었다”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을 맡게 됐고, 천안까지 가서 드립커피를 배웠다”고 했다.

스님은 “억지로 가르치거나 규율로 얽매이기 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포인트”라면서 “사람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어느 순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스님은 고민 상담도 정해진 시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눈다. 힘든 기색이 보이면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그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해준다. 말 한마디에 담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는 스님은 “사회와 가정이 그렇듯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청년들은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 홍대선원은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힙한 곳이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 포교의 성공사례로 주목받는다. 그 시작은 단순했다. 게스트하우스를 기반으로 명상과 채식 등 불교문화를 소개했고 이제는 빨래방과 카페까지 창업했다.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가득 채운 생활 공간이 있기까지 홍대선원 곳곳에는 총무인 법여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주변에서 다 의아해 하며 반대했죠. 스님이 무슨 카페냐고. 그래도 해봤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홍대 앞 작은 골목 카페에서 법여 스님은 매일 아침 8시, 변함없이 커피를 내린다. 골목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웃음을 건네며 있는 그대로 머문다.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해 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스트비 카페는 오늘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